


| | | |
|---|---|---|
|  | <h1>보도자료</h1> <h2>12.17(목) 14:00부터 보도 가능</h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 |
|---|---|---|

| | | | | |
|------|--|------|---|-------|
| 작성부서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전국은행연합회 기술정보부 | | | |
| 책임자 | [금융위원회] 최용호 과장(2156-9750) [은행연합회] 유윤상 상무(3705-5211) | 담당자 | [금융위원회] 윤동욱 사무관(2156-9671) [은행연합회] 윤정열 부장(3705-5050) | |
| 배포일 | '15.12.17.(목) | 배포부서 | 대변인실(2156-9543~48) | 총 11매 |

제 목 :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추진성과 점검 결과

- 중소기업, "기술금융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 96.3%
- 은행 지점장, "기술금융 5년 이내 정착된다" 81.3%

- 은행권 기술금융 대출 58.4조원 공급(잔액기준, '14.7.~'15.11)
 - 기술금융을 통해 기업에 새로이 공급된 신규 및 증액대출은 30.9조원
- (중소기업 CEO 400명) 기술금융 만족도 3.92점 (5점 만점), 지속 이용희망 96.3%
 - 기술금융 실시 전 평균 5.07% 대출금리를 적용받던 기술기업이 기술금융을 통해 평균 3.99%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었음
 - 기술금융의 순수 신용대출 비중은 일반 중소기업 대출의 2배 이상
- (은행 지점장 3,305명) 기술금융 정착 긍정적 82.9%, 5년 이내 정착 81.3%
 - 응답자의 97.1%가 기술금융을 실제 중소기업 여신심사에 활용
 - 기술금융으로 건전성이 개선된다는 응답이 악화된다는 응답의 3배 이상

I. 실시 개요

-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14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의 시행 1년반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 '15.10.30.부터 11.20.까지 중소기업 대표, 은행 지점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술금융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 및 데이터 분석을 실시

【실태점검 개요】

- (주관기관) 금융위원회 및 은행연합회
 - (조사기관) 한국갤럽 / (분석기관) 금융연구원 및 TDB
- (기간) '15년 10월 30일 ~ 11월 20일
- (조사대상) ① 기술금융 실시 중소기업 CEO 400명
 - ② 국내 은행 영업점 지점장 3,305명
 - ③ 기술금융 유관 전문가 6명
 - ④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276,766건('13.7.~'15.9.)

- (추진체계)



II.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중소기업) 금융여건 개선 및 만족도 향상이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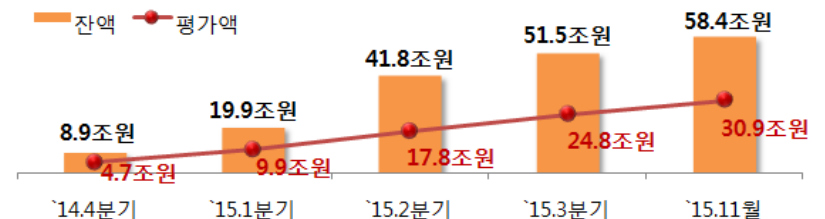
1. 기술금융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여건이 개선

- (규모) 기술금융 도입 후 창업·중소기업에 기업의 기술력 평가에 기반한 은행권 기술신용대출이 총 58.4조원 공급(잔액기준, '14.7.~'15.11)

- 기술신용대출을 통해 기업에 새로이 공급된 신규 및 증액대출(기술 신용대출 평가액*)은 30.9조원 규모('14.7.~'15.11)

* 기술신용대출 잔액에서 금리만 변동되는 기존대출 대환, 기간연장 등을 제외한 것으로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 평가(TECH평가)시 실적산정의 기준

【기술신용대출 규모 증가추이】



□ (금리) 기술금융을 받은 기술기업에 대한 '15년 3분기 평균 금리는 3.9%로 기술금융 도입 전 1년간('13.7.~'14.6.) 평균금리 대비 1.08%p 하락하였으나

○ 기술금융 미실시기업은 0.72%p 하락하여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

* 기술금융 실시기업 : 5.07%('13.7.~'14.6.) → 3.99%('15.7.~9.)
기술금융 미실시기업 : 4.84%('13.7.~'14.6.) → 4.12%('15.7.~9.)

□ (담보·보증) 기술신용대출의 순수 신용대출(무담보·무보증) 비중은 24.9%로서 일반 중소기업 대출(11.5%)의 2배 이상으로

○ 담보나 보증여력이 미흡한 기술기업의 자금조달이 더욱 확대

□ (기간) 기술금융의 단점 중 하나로 지적되던 기술신용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가자료 수집 효율화와 평가절차 안내 강화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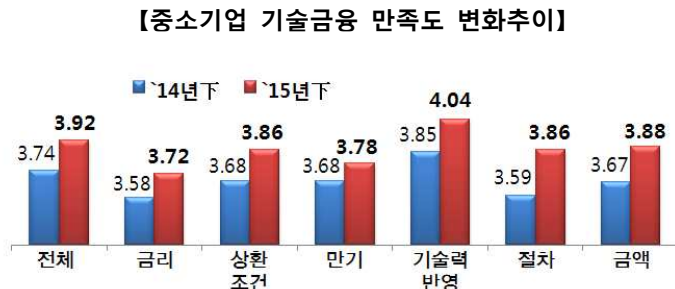
○ '15.5월 21.3일에서 '15.11월 9.8일로 절반 이상 단축



2. 기술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제고

□ (만족도) 중소기업 CEO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15.11.4.~10.), 기술금융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3.92점(5점 만점)으로

○ 작년 조사결과('14.12.) 대비 모든 영역에서 만족도가 상승



□ (재이용 및 추천의향) 설문응답자의 96.3%가 향후 기술금융을 다시 이용하고 싶고 82.3%가 주위에 추천하겠다고 응답

* 기술력 반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술금융 재이용 및 추천 의향이 크게 나타남 (기술력 반영, 대출 금액, 금리, 대출만기, 상환조건 順)

【중소기업 CEO 6명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실시 결과】

-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있어 기술금융의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
"신용이 조금 부족하고 담보가 없더라도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
"이런 제도 자체가 있는 것만 해도 참 고맙고 다행한 일"
- 금융기관이 기술을 평가하는 체계에 대해 만족도가 높음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기업으로서 자존심을 세웠다고 생각한다.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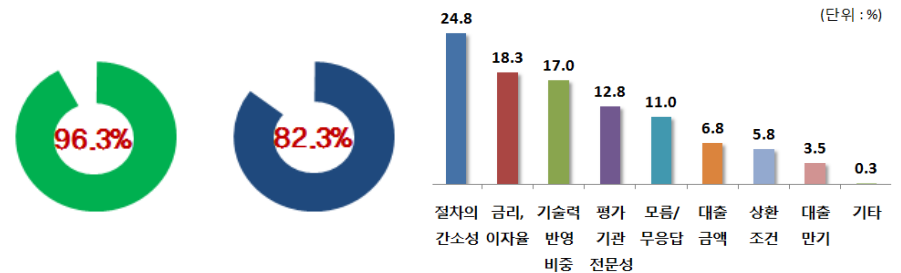
□ (개선필요사항) 향후 기술금융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간소화"가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최다(24.8%)로서

○ 앞으로 기술신용평가에 대한 "신뢰성 및 정확성 제고"와 "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간에 균형을 확보해나갈 계획

【재이용 의향】

【추천 의향】

【개선필요사항】



【중소기업 CEO 6명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실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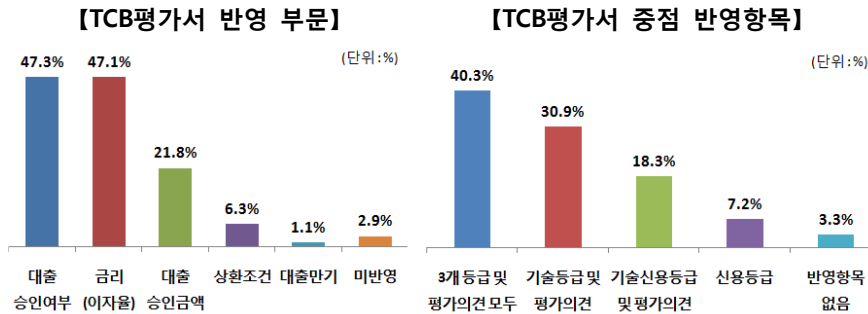
- 예상 외로 기술신용대출 절차에 대한 불만은 적었음
"서류 몇 장 더 쓰는 게 크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은행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도 하고 자료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이 노력해야 한다"
- 기술신용평가의 신뢰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필요성을 언급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특화된 기술금융평가제도가 있었으면 한다."

1. 기술금융이 현장의 여신심사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

- (반영 수준) 국내은행의 지점장 3,3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7.1%가 기술신용평가 결과를 대출심사에 실제 활용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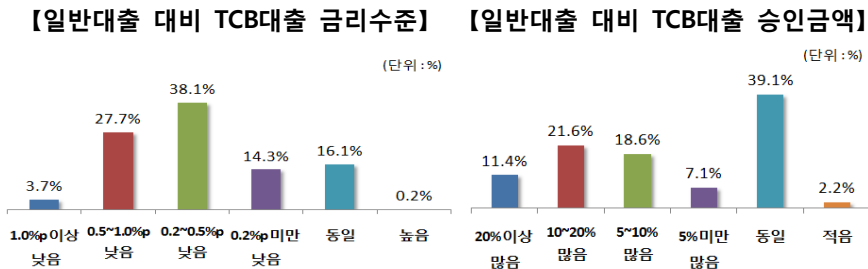
* 국내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취급점포 총 5,507개의 60% 규모

- 대출심사시 승인여부(47.3%) 및 금리 산정(47.1%)시 가장 크게 반영
- 기술신용평가서의 전반적인 항목(기술등급, 기술신용등급, 신용등급, 평가 의견)을 모두 반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40.3%)



- (반영 효과) 기술금융의 반영효과는 대출금리 인하에서 크게 나타남

- 은행 지점장들은 대부분 기술신용대출의 금리를 일반 중기대출보다 낮게 산정 (83.7%)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0.2~0.5%p 낮은 경우가 가장 많음(38.1%)
- 대출금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10~20%가 가장 많음(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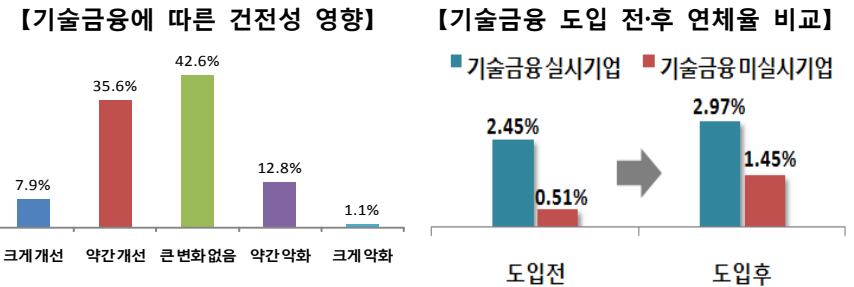
2. 기술금융이 은행의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

- (건전성) 기술금융으로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86.1%

- 은행 건전성이 개선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43.5%로서 악화된다는 13.9%를 크게 상회

- (연체율) 기술금융 도입 전후 1년간* 비교시 기술금융 실시기업의 연체율(원금 및 이자)은 1.2배 증가하였으나, 미실시기업은 2.8배 증가

* 도입 전('13.7.~'14.6.), 도입 후('14.7.~'15.6.) 각 1년간 연체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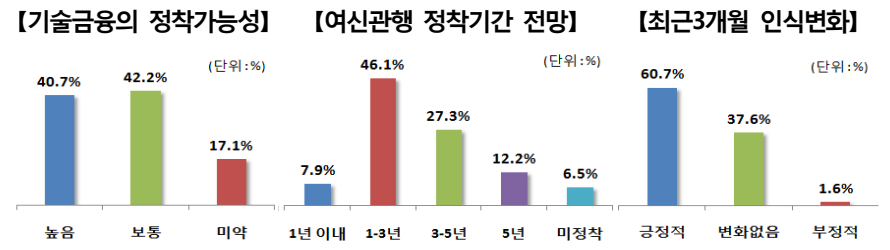


3. 기술금융의 정착 가능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

- (정착 가능성) 기술금융의 여신관행 내 정착 가능성에 대해 82.9%가 긍정적으로 응답

- 5년 이내에 기술금융 정착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81.3%를 차지

- (인식 변화) 6월 금융개혁방안 발표 후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60.7%)가 기술금융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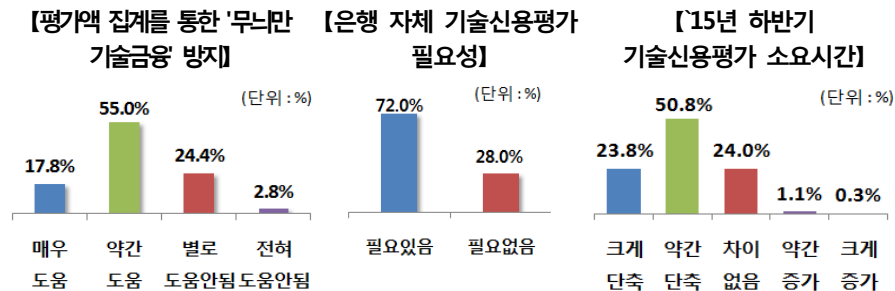
【은행 지점장 6명 심층토론(Focus Group Interview) 실시 결과】

- 은행 현장에서 기술금융 정착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
“은행 입장에서 그동안 신용평가와 부동산 담보에 의존했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하고 신용도 높은 기업이 갑자기 파산하는 경우도 있어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할 필요”
- 기술금융이 신용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기술금융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술력 평가 결과 신용리스크가 증가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려면 3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할 필요”

4. 최근 기술금융 개선방향*은 효과적이라는 반응

※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6.8.),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수립(8.27.)

- 설문응답자의 72.8%가 신규 및 증액 대출만 집계한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도입이 “무늬만 기술금융”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 72%가 기술금융 정착을 위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설문응답자의 74.6%가 '15년 하반기에 기술신용평가 기간이 단축 되었다고 응답



【은행 지점장 6명 심층토론(Focus Group Interview) 실시 결과】

- 기술금융 정착을 위해서는 은행 스스로 기술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
“지금처럼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해주는 방식은 은행의 대출관행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우며,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은행 스스로 기술력을 평가할 필요”

다 【전문가】 기술금융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증가

- 기술금융 유관 전문가 6명이 참여한 심층토론(Focus Group Interview) 결과,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전문가 6명 심층토론(Focus Group Interview) 실시 결과】

“기술금융이 시장에서 분명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고, 실제로 굉장히 기업들한테 인기가 좋은 상황”
“기술금융은 혁신이 제도권 내에서 처음 자발적으로 생기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밑바탕을 정부에서 그려준 것”
“세계에 유래 없는 정책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 시행착오를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점을 인정”

-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및 기술기반 투자 필요성을 강조
- 특히, 기술금융에 있어서 기술기반 투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을 개진

【전문가 6명 심층토론(Focus Group Interview) 실시 결과】

“기술금융의 의지는 은행이 할 거냐 말 거냐에 달려 있기에 은행 자체 기술평가 능력개발이 중요”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은행이 하는 대출이 아니라 투자회사의 투자가 필요”

- 기술금융에 대한 향후 전망은 긍정적 시각이 많으나 정착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개진

【전문가 6명 심층토론(Focus Group Interview) 실시 결과】

“정책의 당위성이 분명한터라 정책 드라이브가 정권이 바뀔다고 해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상당한 은행들이 독자적인 트렌드를 만들고 이미 자기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어 3년 내, 스타트부터 총 5년 내에 환경이 바뀔 것”
“기술금융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20%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정책이 정착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Ⅲ. 평가 종합 및 향후 계획

- 기술금융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중소기업 3.9점, 은행 지점장 3.5점, 전문가 2.8점 順으로 평가(5점 만점)

-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가 기술금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간의 기술금융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6.8.),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수립(8.27.)

- 기술금융의 정착을 위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기술금융 개선을 위한 주요 건의】

- ① (중소기업) 기술신용평가 개선 및 절차 간소화
- ② (은행 지점장) 담보·보증 중심의 여신관행 개선 및 은행 자체 기술신용 평가 실시
- ③ (전문가)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 정책 추진 필요

- 금융위원회는 이번 점검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 ① (TCB 절차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 TDB 기능 강화를 통해 TCB 평가 효율화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 기술신용대출 정보 집적을 통해 TCB 평가 정확성을 점진

- ②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실시) 은행이 인력·조직 등 기술금융 역량을 확보하여 '16년 하반기부터 자체 평가 실시

- ③ (기술평가 기반 투자 확대) 현재 조성된 기술평가기반 투자펀드*의 투자를 조속히 실시하고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활용하여 추가펀드 조성

* 기술평가기반 투자펀드 6,570억원 기 조성

- 앞으로 기술금융 정착 수준을 정기적인 실태점검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보완해나갈 예정

참고 1

최근 기술금융 개선 세부 추진사항

제4차 금융개혁회의(6.3.) 및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발표(6.8.) 후 금융개혁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후속과제를 지속 추진

<추진 완료>

- ① 기술평가 기반 투자펀드로서 IP NPE 펀드 출범('15.6.)

* 산은 및 기은이 각 500억원 출자하여 총 1,000억원 규모로 결성

- ②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 평가(TECH평가) 개편('15.7.)

- ① 신규 및 증액 대출만 집계한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지표 도입
- ② 신용대출, 우수 기술기업 지원, 초기기업 지원시 가점

- ③ 은행 자체 기술평가를 위한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수립('15.8.)



- ④ 기술신용평가 절차 효율화 및 신뢰성 제고('15.8.~11.)

- ① 현장실사 전 기업 제출 필요서류 최소화('15.8.)
- ② 우선평가 및 심층평가 제도 도입('15.9.)
- ③ 현장실사 전·후 유선안내 및 해피콜 실시('15.9.)
- ④ TCB 내 검수조직 구축 및 검수자 실명제 실시('15.10)
- ⑤ 기술신용등급 체계 일원화 및 세부 평가모형 도입('15.11.)

- ⑤ 기술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15.8.~10.)

* 은행,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 유관기관 소속 106명 대상 교육 실시

- ⑥ TDB 정보체계를 기술·제품 단위에서 기업 단위로 개편('15.12.)

<연내 추진 완료>

- ⑦ 벤처캐피탈 등이 활용가능한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형 개발('15.12.)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① 에이피우주항공(주) : '15.3.31일 금융위원장 격려방문

- '에이피우주항공(주)'는 '12.2월 설립한 위성본체 및 부품 제조 기업
- '15.3월 발사된 아리랑3A호 제작에 참여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나 기술 개발비용에 따른 적자 등 재무여건 악화로 인해 금융 확보에 어려움**
 - * 기술보증기금의 TCB평가 결과 기술등급 : T2(우수)
 - ** 기존 자체 신용등급 : BB
- 아리랑 6호 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 기업은행의 기술신용평가(TCB평가) 기반 대출 30억원 지원 실시
 - * 기보 보증부 대출 19억원(신용 4억원 포함) 및 순수 신용대출 11억원
 - 기술신용평가 없이 업체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대출로 조달했을 경우에 비해 기술금융을 통해 연간 이자비용 163백만원 절감

② (주)소명 : '15.9.24일 금융위원장 격려방문

- '(주)소명'은 '98.12월 설립한 철도차량 출입문 개폐시스템 제작 업체
- 최초로 철도차량 출입문 개폐시스템을 국산화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나 R&D비용에 따른 적자 등 재무여건 악화로 인해 금융 확보에 어려움**
 - * 기술보증기금의 TCB평가 결과 기술등급 : T3(우수)
 - ** KEB하나은행 자체 신용등급 : C1
- 신규사업 진출 및 추가 수주를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 KEB하나은행의 기술신용평가(TCB평가) 기반 대출 27억원 지원 실시
 - * 담보부 대출 18억원 및 순수 신용대출 9억원
 - 기술신용평가 없이 업체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대출로 조달했을 경우에 비해 기술금융을 통해 연간 이자비용 34백만원 절감